양양소식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2022. 7

Vol. 326

CONTENTS

04 기획특집
민선 8기 양양군수 김진하
양양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08 마을가는 길
서면 황이리

여름의 구심력

박연준

나뭇잎은 걸을 수 없다
묶일 발이 없고
손과 목과 얼굴이 없다

이파리에 돋은 맥은
여름이 숨긴 지도다

푸른 것들은 떨어질 일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어쩌면 좋을까

버드나무 아래
머리카락을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

투명하게,
길어지는 꼬리

떠난 공들이 돌아오고
태어난 자리에서
맹세가 사그라질 때

어떤 여름은
영원 속을 지나간다

양양소식

Vol. 326

CONTENTS

COVER STORY

여름 해수욕장 개장

희망양양

4 **기획특집_** 민선 8기 김진하 양양군수 양양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8 **마을가는 길_** 서면 황이리

12 **양양군청 IN & 人_** 양양군보건소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양양군보건소

의기양양

16 **의정소식_** 제9대 양양군의회 개원

18 **향토사 이야기_**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2. 관음의 진신을 뵙지 못한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설화

20 YANGYANG NEWS

열린양양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24 **건강 알리미_** 살모넬라균감염증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28 **공익광고_**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양양군 SNS 주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군

양양소식 · 326호

| 발행일 2022년 7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 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민선 8기 김진하 양양군수 양양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양양 군정도 새로운 출발을 다졌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당선 후 인사말에서 "끝까지 믿어주신 군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군이 진정한 글로벌 플랫폼 거점도시로서 동해안의 중심이 되도록 새로운 양양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라며, 군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8기의 군정에 의지를 보였습니다.

양양시대의 완성을 다짐하는 공약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완성을 다짐하는 김진하 군수를 만나봅니다.

양양시대의 완성을 위한 5대 공약

김진하 양양 군수는 민선 6 · 7기에 추진해 온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실질적인 군민소득 창출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연계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선 6 · 7기 8년간 양양군정을 이끌며,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과 서핑 해변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지역 균형 도심화 설계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채무 제로화와 예산 5천억원 달성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양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대내외적으로 양양의 발전을 이끌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민선 8기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완성과 더불어 오랜 숙원이자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첫 번째로는 **동해북부선 철도와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로 양양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부상하고 있는 양양은 동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 취항에 이어, 동해북부선 철도건설도 가시화되는 등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여기에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도심과 주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이 지역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권역별로 차별화된 도시정책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해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심재생사업과 함께, 서핑 활성화 지역과 연계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농업 · 수산업 ·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농 · 축산업은 물론 연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어촌 뉴딜사업을 통해 수산업 활성화 등 농 · 축 ·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 복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6 · 7기에서 추진해온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의 정주 여건을 갖추는 데 주력한다.

다섯 번째는 민선 8기 양양군 현안사업이자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지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희비를 거듭해 왔는데, 임기 내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반드시 완성할 계획이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6.1 지방선거 후 전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새로 당선된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새로 시작하는 민선 8기를 준비하느라 떠들썩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양양군은 차분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지난 민선 6 · 7기에 이어 일관되게 군정을 챙기는 3선의 김진하 양양군수를 만난다.

양양군은 차분하게 민선 8기를 맞이했지요?

대부분의 지역이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인수위가 꾸려지고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 18일간 집중해서 선거유세를 한 것 외에는 당선 다음 날부터 제자리를 지키고 있죠. 꾸준히 연장선상에서 군정을 맡게 돼 다행이고 군정의 공백이 적은 것도 다행입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집집마다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주민들과 밀접하게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점이 주민들에게 무한 신뢰를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른 새벽에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출근합니다. 생활 밀착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직접 보고 듣고 해야만 해결도 되는 거니까요. 농사로 치면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농사란 농부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가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저도 양양군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니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양양은 한적한 지방 도시에서 전국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급성장했죠?

양양은 설악산이나 낙산사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도시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서핑 도시 양양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전혀 다른 양양의 매력을 보이고 있어요. 단순한 관광객의 증가가 아닌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있죠. 도시가 확대되고 트렌드화 되면서 지역이 활기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른 변화로 인해 그만큼 문화적 충돌이나 주민들이 새로운 문화,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했죠.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스마트 서프 도시 선정 등으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도시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변화에 맞춰 상생하면서 행복한 양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을 뒷받침하고 이끄는 것이 군정의 역할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선으로서 "양양시대의 완성을 위한 시간"을 맞이했다고 하셨죠?
양양시대란 무슨 의미이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양양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도시가 이러한 변화와 흐름을 담아내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서 도시 계획을 세워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양양의 도시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양양 시대를 맞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 발전하는 양양의 4년이 기대됩니다.

지난 8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양양 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라는 군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라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초심으로 되돌아가 현안 하나하나를 다시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고 지금처럼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전하는 양양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모든 군민께 감사드립니다.

〈**글 · 사진** : 편집부〉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村村

서면 황이리

전형적인 산촌에서 체험관광마을로 변모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화합하는 주민들
귀농귀촌의 선례 창출에 기여하는 마을

한낮의 열기와 습도를 머금은 여름 바람이 아련한 어린 날의 추억을 소환한다. 시원한 계곡에서 즐기던 물놀이, 모기향을 피워놓은 평상에서 먹던 수박의 단맛, 매미 울음소리를 따라 숲속을 누비던 기억 등 즐거웠던 여름방학의 단상들이 하나 둘 떠오른다.

백두대간 구룡령 자락에 기대어 있는 황이리, 일명 황룡마을에서 여름방학 감성이 되살아남을 느낀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거리, 넉넉한 인심을 간직한 이 마을은 방학마다 놀러 갔던 외갓집을 닮았다. 마을을 찾은 모든 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주기 위해 주민들이 끊임없이 고민해 온 덕분이다.

산간 오지마을에서 산촌 관광마을로

「신라시대 수도승들의 요람이었던 선림원지와 미천골을 품에 안은 전형적 산촌마을인 황이리는 마을 형상이 귓불이 늘어진 누런 황룡이 머무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발췌」

양양군청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황이리는 법정리인 서림리 일부와 미천리가 합쳐지면서 탄생한 마을이다. 김종한 노인회장의 설명으로는 당시 마을 이름을 짓기 위해 문장(文章)에게 작명을 의뢰했는데, 처음에는 봉황 '황(凰)'자를 썼다가 동네에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해서 누를 '황(黃)'자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어 마을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 회의를 통해 '황룡마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었다.

화전민이 터를 일구면서 많은 사람이 정착하기 시작한 황이리는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산골 오지 마을이었다. 버스가 다니기 시작한 1970년대 이전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장이라도 보려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다고 한다.

「장날이면 아침에 첫닭이 울 때 집을 나섰어요. 장터에 내다 팔 콩이나 옥수수가 든 자루를 짊어지고, 손전등 없이 어둑어둑한 산길을 몇 시간씩 걸어서 갔죠. 그리고 반찬거리를 사서 다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 김종한 노인회장」

시장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던지, 중간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집에서 싸 온 도시락을 먹거나 이웃 마을에서 밥을 얻어먹곤 했다. 그만큼 마을 밖을 나서기가 어려웠던 황이리였지만, 반세기가 넘은 지금은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황룡마을'이 되었다.

황룡마을은 2000년대 후반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산촌생태마을 등의 마을 사업을 통해, 천혜의 자연 · 문화 자원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갖춘 산촌 관광마을로 도약할 수 있었다.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겠다는 주민들의 열의와 화합이 이루어 낸 쾌거라 하겠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거운 황룡마을

황룡마을의 자랑거리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남대천 지류인 1급 수질의 후천을 비롯해 미천골자연휴양림, 불바라기 약수터, 얼음굴 등산로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품고 있는 데다 서양양IC가 생기면서 접근성도 좋아졌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까지 자연생태체험과 건강미용체험, 농촌생활체험 등 마을의 특색이 녹아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에게는 체험 교육의 현장을 제공하고, 도시인들에게는 힐링하기 좋은 휴양지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가장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으로는 마을 내 솜씨 좋은 어르신들이 직접 전수하는 짚풀 공예 체험과 여러 가지 약초를 우린 물로 진행하는 약초 족욕 체험이 손꼽힌다. 특히, 마을을 찾은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로 주민들이 직접 다듬이 난타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열심히 합을 맞추고 연습한 덕분에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 화합은 우리 마을의 최고 자부심입니다. 책임을 맡고 계시는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이사들이 마을 일에 적극 참여해주고, 우리 사무장도 프로그램을 잘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이 열심히 도와주니까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혼자서는 못해요.

– 강종구 이장」

황룡마을은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중단되었던 체험프로그램을 조금씩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강종구 이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4계절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객의 선호도와 여행 트렌드를 감안하여 기존 체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보완할 생각이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저스트 프로젝트(Just Project) 팀과 함께 마을의 이야기를 담긴 가죽 공예 키트를 개발해 판매했다. 버려지는 폐가죽을 활용해 친환경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갖는 체험거리로 연계할 예정이다.

우리 마을에서 한 번 살아보실래요?

황이리에는 약 11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귀농 · 귀촌민의 수요는 30%에 달한다.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들의 마음은 항상 활짝 열려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24년 전에 황이리 주민이 되어 지금은 2반 반장을 맡은 추몽엽 씨가 마을에 정착하게 된 계기도 자연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라고 한다.

마을에 대한 호감도는 은퇴자 공동체 마을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높아졌다. 2021년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은퇴자 공동체 마을'로 거듭난 황이리는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서 2개월간 귀농 · 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양양살이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성공적인 귀농 · 귀촌생활의 마중물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6세대 중 2세대가 양양에 정착했으며, 1세대가 농지를 매입해 귀촌을 준비하고 있다. 처음엔 황이리로 이주하기를 희망했지만 마을에 빈집이 없어서 아쉽게 다른 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고 한다. 빈집이 없다는 건 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 그만큼 이 마을이 살기 좋다는 방증이 아닐까?

안군혁 청년회 총무는 **'마을이 살려면 유입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이 마을에 머물수록 인지도는 높아지고 그것이 경쟁력이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을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한다.

황룡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일까? 이미 완성형으로 보이는 황룡마을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이어가며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진 황룡마을 사람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군보건소

건강백세, 행복양양을 만든다.

부서: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규모 : 10팀 105명
업무팀 :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식품위생, 공중위생, 건강증진, 방문보건, 진료지원, 정신건강, 치매관리

질병예방, 진료, 건강증진 등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는 전국 시 · 군 · 구 단위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속하는 양양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보건소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업무와 역할이 크다. 지난 3년, 양양군보건소는 코로나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숨 가쁘고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속에 양양군보건소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빛난 시간이기도 했다.

60년 역사 속에 가장 힘들고 빛났던 순간

양양군보건소는 지난 1963년에 개소해 6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면 단위마다 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소외된 지역 없이 양양군민의 건강을 빈틈없이 지키고 있다. 현재 양양군보건소는 권성준 소장을 비롯해 보건정책과 54명과 건강관리과 51명, 총 2개 부서 직원 105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0년 4월, 양양군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올해 6월 15일 기준 7,600여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감염률 전국 평균치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양양군보건소는 재빨리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최신설비를 갖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직원들은 늦은 밤까지, 서로의 일을 가리지 않고 합심해서 일사분란하게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다. 타지역에선 코로나 관련 업무 외에 모든 게 중단됐다면 양양군보건소는 진료 중단 없이, 보건증 교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이어갔다.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보건소 업무를 원활하게 만드는 보건정책과

보건소 하면 '진료 보는 공공의료기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보건소는 의료 업무는 기본, 각종 보건행정까지 전담하고 있다.

양양군보건소는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 두 부서가 업무 균형을 맞춰 일하고 있다. 보건정책과는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식품위생, 공중위생팀으로 분류돼 세부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행정팀은 보건소 인력과 예산, 시설 · 의료장비 관리, 보건행정 종합계획수립, 각 부서 업무지원 등을 담당한다. 감염병대응팀과 감염병관리팀은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병이 발생할 때 예방접종과 방역, 환자 관리, 역학조사 업무를 전담한다. 위해식품으로부터 군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등을 관리하는 식품위생팀, 숙박시설과 목욕탕, 이 · 미용 등 공중 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담당하는 공중위생팀 등 다양한 보건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보건정책과는 양양군보건소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 관련, 가장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다.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는 주민의 건강을 직접 챙기는 부서로 특히 대면 활동이 많다. 건강증진, 방문보건, 진료지원, 정신건강, 치매관리, 총 5팀이 손발을 맞춰 일하고 있다.

팀별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증진팀은 영양, 비만,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과 금연 사업,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보건팀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상담, 재활장비 대여, 맞춤형 방문재활교실, 모자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진료지원팀은 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핵 관리사업, 암 환자 의료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정신건강팀은 그동안 외부에 위탁해 오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 예방사업 등을 올해 1월부터 직접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 위주의 사업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정신건강 예방과 조기 발견에 노력 중이다.

치매관리팀은 2019년 7월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치매 조기 발견, 치매환자가족 상담지원 서비스 등 적극적인 치매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건강관리과는 임산부와 영유아, 어린이부터 치매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이다. 업무 특성상 대부분 주민과 대면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많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 건강관리과의 대다수 업무가 멈췄다. 대신 코로나 업무 지원에 대거 투입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제 코로나 환자 발생률도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다시금 주민들을 만나기 위한 업무 준비가 한창이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보건정책과와 건강관리과는 서로의 업무영역을 따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업무효율과 능력을 바탕으로 양양군보건소는 지난해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 우수유공 기관상 표창(강원도지사)과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표창(보건복지부장관)을 연이어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양양군보건소장으로 부임한 한양대 의대 교수출신 권성준 소장은 요즘 직원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새로운 계획과 업무 구상을 하느라 분주하다.

"만보 걷기 등 주민의 건강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직접 찾아가서 살피고 챙길 예정입니다. 주민과 더 가깝게 먼저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활동 영역도 다양하게 넓혀갈 계획입니다."

군민과 함께해 온 60년, 양양군보건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다시금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보여준 양양군보건소의 빛나는 저력이 이제 코로나를 넘어 건강백세 행복한 양양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

〈글 · 사진 : 편집부〉

양양군보건소

1957년 양양진료소

1971년 양양군보건소

2022년 양양군보건소

제9대 양양군의회 개원

제9대 양양군의회 의원들이 밝힌 『의정방향과 임하는 각오!』

오세만 의원

주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선의 의정경험으로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며,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 · 일자리 · 노인복지 · 관광지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헌신적으로 일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주민 여러분과 더욱 소통하고 공감하며, 행동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현장 중심의 참 일꾼'으로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안한 삶과 모두가 잘 사는 '아름답고 행복한 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군민과 나란히! 같은 꿈을 꾸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처음 군민을 모시던 첫 마음과 의원선서를 하던 결연함으로 반드시 군민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문화 · 장애인 · 성평등 · 어르신 · 아이를 위한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퇴보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일상을 지켜주는 생활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일하는! 소통하는!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군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였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듣고,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육, 일자리, 보육, 노인복지, 귀어 · 귀농 · 귀촌 등 여러 분야에서 주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책발굴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박광수 의원

믿음직한 '경제일꾼'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새 시대,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분야의 풍부하고 추진력 강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스마트 관광양양을 완성하겠으며, 우리 지역을 복합관광거점 지역 및 경제 중심지로 우뚝 세우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최선남 의원

뚝심있게! 똑부러지게! 안전하고 행복한 양양군을 만들겠습니다

오랜 기간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갈고 닦은 리더십과 화합의 추진력을 발판 삼아, 분야별 현안 해결과 양양군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말보다는 '한다면 한다는 열정과 뚝심!'으로 모든 일을 행동과 실천에 옮기며, 군민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진정한 양양발전과 군민 행복시대를 여는 '참일꾼'으로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

양양을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군민이 행복해하는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양양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었던 경험을 살려서 소외받는 군민 없이, 남녀노소 모든 군민이 행복해하는 양양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연어산업 중심지 구축, 글로벌 플랫폼과 교통망 구축,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농업 · 수산업 · 축산업 발전 등 양양의 특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청취 – 양양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angyangcouncil.go.kr)

낙산이대성(洛山二大聖)

관음의 진신을 뵙지 못한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설화

낙산이대성인 원효(元曉)는 의상(義湘)과 같이 661년(문무왕 원년) 당나라로 떠나려 당항성(棠項城:지금의 경기도 안산시)으로 가던 길에서 원효는 해골에 괸 물을 마시고 "진리는 결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터득하고 의상과 헤어져서 돌아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원효대사 진영

▶ 낙산사를 찾아오는 들길에서 벼를 베는 부인을 만나다.

원효대사가 양양 땅에 들어와 멀리 낙산(오봉산)이 보이는 논두렁길을 걷고 있노라니 논에서 흰옷을 입고 벼를 베고 있는 부인을 만나 "남편은 무엇 하기에 부인 혼자 이 호젓한 들판에서 벼를 베고 있소. 나 같은 중이 업어가면 어쩌려고?"라고 말을 던지니 부인은 대사를 쳐다보며 웃으면서 "나 같은 못생긴 여자를 어떤 남자가 업어가겠소. 요석공주처럼 곱게나 생겼으면 원효대사 같은 훌륭한 스님이 반하여 업어가겠지만…"한다.

한때 요석공주와 연정을 불태워 아이[설총(薛聰)]까지 낳았던 원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뜨끔하였다. 초면에 중에게 서슴없이 받아넘기는 그 여자의 모습에는 범할 수 없는 기품이 있어 보였다. 원효는 그 기품 때문에 짐짓 "소승은 그따위 파계승 원효와는 다른 비구이니 업어갈 염려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욕해보는데 그 여자는 "원효대사는 자비심이 많고 너그러운 스님입니다. 자비심과 관용이 있었기에 요석공주의 애처로운 애정을 받았지요, 목석(木石)같은 외고집 중들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뜻밖의 말을 하기에 호기심이 생겨 "그럼 부인도 원효대사가 구애한다면 요석공주처럼 그 청을 들어주시겠소."라고 은근히 떠보았다. 그러니 그 부인은 "나는 사정이 좀 다르오."라고 대답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 혹 이 여자가 부처님의 화신이 아닐까 하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농을 거두고 "부인께 실례되는 말을 하여 죄송합니다. 뜨내기 나그네 중의 말을 허물치 마십시오. 하도 관음보살같이 아름답고 다정하신 분이라 심심해서 한 말입니다."하고는 "이렇게 오는 길에서 만나 이야기하게 된 것도 하나의 인연이니 벼 이삭 하나를 주면 낙산사 부처님께 추수를 감사하는 뜻으로 바치겠다."라고 하였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부처님 은덕으로 대풍년이 들어 보은의 뜻에서 낙산사 부처님께 바치려고 사실은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건네주는 벼 이삭을 받아들고 헤어졌다.

멀리 오봉산 낙산사가 보이는 강현면 답리. 주청리 들판

▶ 다리 밑에서 월수백(月水帛)을 빠는 여인을 만나다.

원효는 재촉하여 낙산사로 향해 한참 가니 맑은 시냇가 다리 밑에서 소복을 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원효는 목이 말라 그 여자에게 물 한 모금을 청했다. 여자는 빨래가 잠겨있는 아랫물을 떠주었다. 화가 난 원효는 그 물을 엎질러 버리고 "같은 값이면 빨래 위쪽의 맑은 물을 떠줄 것이지…"라고 하면서 손수 내려가 퍼마셨다. 빨래하던 여인은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겸연쩍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원효는 "기이한 일도 다 보겠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언덕을 올라 발길을 재촉하였다.

▶ 길옆 소나무 위 파랑새를 만나다.

원효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는데 길옆 소나무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으며 "휴제호화상(休醍醐和尙/그만두시오)"이라 크게 한 마디 울고는 어디론지 날아갔다. 원효는 "이상한 말을 하는 새로구나." 뇌까리며 그 소나무 밑을 보니 벗어놓은 신발 한 짝이 있었다.

낙산사 홍련암(관음굴) 앞의 파랑새 모습

▶ 법당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다.

원효가 낙산사에 이르러 예불하려고 법당에 들어가 보니 관음보살의 불상 밑에 여자의 신 한 짝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파랑새가 앉아 울던 소나무 밑에 있던 그 신짝과 똑같았다. 그제야 벼를 베던 여자와 월수백을 빨던 여자가 사람이 아니고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나타나 나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라 깊이 뉘우치며 깨닫게 되었다. 이런 설화가 있은 뒤부터 이곳에서는 파랑새가 앉았던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기리고 있으며, 낙산사에서 파랑새를 만나면 관음의 진상을 뵈는 듯 기뻐한다.

〈글 · 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뉴스 YANGYANG NEWS

한국관광공사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양양군과 한국관광공사는 6월 14일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조성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내 손안의 파도, 스마트한 여행 「스마트 서프시티 양양」'을 구현하여 국내 서핑관광을 리드하는 선도 도시를 목표로, 2023년 3월까지 총사업비 70억원(국 35, 도 10.5, 군 24.5)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핑 이용객과 서핑 갤러리 모두를 위한 스마트 서핑 플랫폼 구축, 일과 휴양을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을 양양군 관광트렌드로 자리 잡기 위한 서핑 워케이션 센터 조성 등이 있다.

2022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48건 공개

양양군이 올해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 사업 48건을 선정하고,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 · 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하고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대상사업은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이전사업 등 48개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류형 관광활성화 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양양군은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6주간 워케이션(Worcation)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워케이션(Work+Vacation)'은 휴가지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새로운 관광근무 형태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급부상하였으며, 휴가지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트렌드이다.

군은 주중 ·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양양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숙소, 각종 체험, 레저, 맛집 등으로 구성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6회로 나눠 진행하며, 1회당 3박 4일의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양 종합여객터미널(송암리),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

양양읍 송암리 일원에 새로 지어진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송암리에 신축 이전한 종합여객터미널은 1층에 대합실과 매표소, 무인발권기, 수하물 보관소, 정비소 등 터미널 기본시설을 비롯해 관광안내소, 휴게음식점을 설치해 이용객의 편의를 돕는다.

또한 2층에는 사무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해 휴게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속 · 시외 · 시내버스와 택시, 일반차량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시설 배치로 이용객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대천 인피니티 물놀이장, 7월 1일 개장

양양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양양 남대천 인피니티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철을 맞아 문을 여는 남대천 야외 물놀이장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남대천 인피니티 물놀이장(운영시간 10시~16시)은 어린이 물놀이장, 유아 물놀이장과 분수대, 샤워장,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최대 수심을 30cm 안팎으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구명장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양양 남대천을 찾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료, 샤워장, 탈의실 등 모두 무료다. 단,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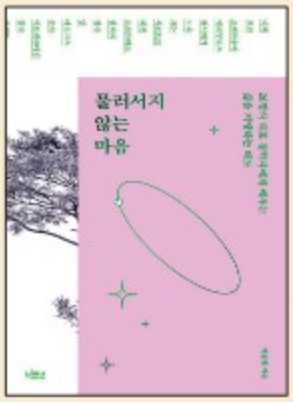
여름해수욕장 7월 8일부터 운영

오는 8일부터 관내 21개 해수욕장을 정식 개장한다. 올해 여름 해수욕장은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45일간 운영된다.

올여름 운영하는 해수욕장은 지난해 59만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낙산해수욕장을 비롯해 하조대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정암해수욕장, 물치해수욕장 등 총 21개소(해안선 9,400m)다.

해수욕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24시까지이며, 물놀이 구역 내에서의 수영 가능시간은 피서객의 안전을 고려해 수상안전요원이 근무하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제한한다.

책 속의 세상
7월 책이야기



물러서지 않는 마음
| 이준형 지음
| 빅피시
| 2022. 5월

당신의 하루에 철학의 시간이 있습니까? 이 문장들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삶을 살아낼 힘이 생긴다! 어쩌면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루기 어려운 바람, 과한 욕심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주 상황에 따라 선택을 망설이고 관계에 대해 고민하며 추스른 마음이 무너지곤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책 속 한 구절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섯 가지가 있다고 믿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둘. 죽은 뒤를 걱정하지 말아라.
셋.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해라.
넷. 정치를 멀리해라.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할 물질적인 것들은 매우 적음을 깨달아라.
다섯. 고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라.
여섯.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어떤가. 시대의 변화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이 많지 않나? 에피쿠로스와 그의 학파는 철학이 단순히 이론을 만들고 사유하는 과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철학이 사람들에게 '실천적 지혜'로 활용되기를 바랐다. 현재를 긍정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두려움을 멀리했다.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
| 김영진 지음
| 성안당
| 2022. 5월

마시면 마실수록 약이 되는 물과 소금의 힘

물은 몸의 온도를 조절할 뿐 아니라 장기와 혈관 구석구석에 영양소를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몸의 신진대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 자주 많이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치매와 물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이 부족하면 각종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뇌에 물 공급이 되지 않으면 치매로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의 1부에는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이유,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왜 남성보다 여성에게 치매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 치매인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등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치매를 일으키는 식품과 치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나쁜 식습관을 소개하고, 3, 4부에서는 체내에 물이 부족해서 뇌에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치매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물이 치매의 예방과 치유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5부에서는 운동, 독서 등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글 · 그림 출판사 제공 자료 발췌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토르 러브앤썬더

그레이 맨

미니언즈2

외계+인 1부

뽀로로 극장판 드래곤캐슬 대모험

더 킬러_죽어도 되는 아이

한산_용의 출현

메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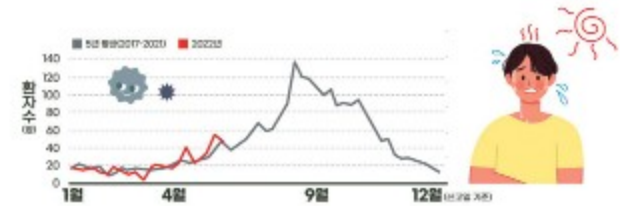
건강알리미

더운 날씨에 더욱 기승하는 세균의 적색 경보!

살모넬라균감염증 바로알기!

■ 살모넬라균감염증은 무엇인가요?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균 (non-typhoidal Salmonella)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으로, 하절기 환자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떤 증상이 있나요?

- 주로 균 감염 6~72시간 후 경련성 복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의 증상이 발현됩니다.
- 설사가 며칠간 지속되어 탈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드물게 소변, 혈액, 뼈, 관절, 뇌, 중추신경계로의 침습적 살모넬라균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감염되나요?

- 살모넬라균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감염원인 식품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날달걀, 덜 익힌 달걀, 오염된 육류)
- 동물, 감염된 동물 주변 환경과 접촉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살모넬라균감염증 환자를 통한 분변 – 구강 경로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이 있나요?

- 대부분 5~7일 후에 회복 가능합니다.
-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 심한 설사, 심한 병증,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영아나 65세 이상, 면역저하자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올바른 손씻기

위생적으로 조리하여 안전한 음식 섭취

출처 : 질병관리청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양양어린이집	1명	한식조리사 (자격증 필수)	09:00~18:00 (주5일)	월192만원이상 (수당별도)
㈜신우그린	3명	골프장 코스관리원	08:00~17:00	연2,800만원
㈜소노에스테이트서비스(쏠비치)	10명	객실청소원	09:00~18:00(주5일)	1일10만원
㈜월드와이드 써비스코리아 (을지인력개발원)	1명	숙박시설 관리원	08:30~17:30(주6일)	월222만원
	2명	프론트사무원	교대근무	월241만원
주식회사 디에스씨	3명	하우스키퍼	교대근무	월220만원
주식회사 스마트푸드	1명	기계조작 및 생산관리원	09:00~18:00(주5일)	월191만원
주식회사 정건설	1명	토목시공기술자 (건설시공 및 공무)	09:00~18:30(주5일)	월300만원
코레일관광개발(주)낙산연수원 (기간제)	1명	건물보수 및 영선원 (전기,시설)	09:00~18:00(주5일)	시급9,160원
	2명	공용시설 청소원	09:00~18:00(주5일)	시급9,160원
	5명	객실청소,카라반정비 하우스키퍼	09:00~18:00(주5일)	시급9,160원
	2명	프론트사무원	교대근무	시급9,160원
진양산업	4명	수산물가공생산직 (홍게뚜껑 생산)	08:00~17:00(주6일)	시급9,160원
㈜소노인터내셔널 양양지점(쏠비치)	1명	조경 일용직	08:30~17:30(주5일)	1일 74,000원이상
㈜서일개발	1명	아파트청소원	08:00~15:00(주5일)	월143만원
유화타일	1명	자재배송 및 창고관리	08:00~17:00(주5일)	월230만원
양양연수원	7명	조리보조원(1개월 근무)	1일8시간 교대근무	월310만원

강릉~속초(양양공항) 운행 시간표 안내

》 강릉 → 속초(양양공항)행

※시행일자 : 2022.6.14.

구분	운 행 시 간 표												
	강릉	아산병원	주문진	남애리	인구	하조대	양양공항	양양터미널	낙산	설악산입구	고속터미널	(구)소방서	속초
	발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착
1	07:14	07:27	07:42	07:51	07:56	08:04	08:17	08:22	08:29	08:35	08:40	08:45	08:52
2	12:25	12:37	12:52	13:01	13:06	13:14	13:27	13:32	13:39	13:45	13:50	13:55	14:02

》 속초(양양공항) → 강릉행

※시행일자 : 2022.6.14.

구분	운 행 시 간 표										
	속초	설악산입구	낙산	양양터미널	양양공항	하조대	인구	남애리	주문진	아산병원	강릉
	발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경유	착
1	07:47	08:00	08:06	08:17	08:22	08:31	08:39	08:44	09:00	09:10	09:24
2	12:44	12:57	13:03	13:14	13:19	13:28	13:36	13:41	13:56	14:06	14:21

본 운행시간표는 버스운수회사 및 도로교통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원여객자동차(주)☎033-643-6123)

정보꾸러미

코로나19 극복지원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감면대상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주

감면세목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범위

- 인하임대료 적용기간 : 2021. 6. 1. ~ 2022. 5. 31.
- 임대료 인하액 만큼의 100%를 재산세액(지역자원시설세 포함)에서 감면 ※고지서 건당 감면세액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재산세 감면받는 금액 준용

감면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행행위법, 유흥업 등 배제업종은 제외)
- 임대인과 임차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업장이 건축물(주택일 경우 제외)
- 임차인 사업장과 임대료 인하 물건 동일

신청절차

-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 건물주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
- 신청기간 : 2022. 6. 1. ~ 12. 31.(1회 신청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강원도 양양군 군청길 1,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033-670-2107)

신청서류

구 분	서 류 명	비 고
감면 신청서	① 지방세감면신청서	- 양양군 홈페이지
임대인 서류	② 임대차계약서 당초와 변경(약정)계약서	- 변경계약사항 명시도 가능
	③ 금융거래내역	-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입금 확인증, 세금계산서 중 택1
임차인 발급	④ 소상공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터넷) (www.semas.or.kr)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 안내

현재 60세 이상 연령층의 코로나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코로나19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접종대상 60세 이상 연령층 중 3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분(1962년생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본인 희망시)

접종방법

- 당일접종 (의료기관 유선 연락)
- 사전예약 : 보건소(☎033-670-2540, 2940)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예약 가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현황〉

- **상명내과의원** ☎033-672-8712 양양군 양양읍 남문6길 4
- **연세의원** ☎033-672-0888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38
- **중앙외과의원** ☎033-672-0911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48
- **성모의원** ☎033-673-2800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62
- **양양정형외과의원** ☎033-672-6723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1

정보꾸러미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
일최고체감온도가 33°C이상인 더운 날씨
폭염주의보
① 일최고체감온도 33°C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① 일최고체감온도 35°C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안전 수칙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활동 자제
실외활동, 외출자제
충분한 물섭취
야외작업 자제
보다 나은 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연 최대 144,000원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신청
www.bokjiro.go.kr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배우 / 김아중

KoROAD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
향향근
2022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 운전면허 갱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까지로 민원인 방문이 하반기 및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시험장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고3 수능 이후 및 방학, 휴가 기간으로 민원인 방문이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민원 방문이 적은 상반기에 시험장 및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면허증을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신청 가능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으로
당당한 노후생활을!
내집에서, 평생동안 월급처럼 받습니다.
배우자도, 평생동안 같은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남은 자녀 상속, 모자라면 국가가 부담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금융포털 스마트폰 앱
금융위원회
HF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양양군

양양군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 책, 상자류 등	◆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끈 등으로 묶어서 배출 ◆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코팅된 종이, 이물질이 묻은 종이류는 종량제봉투로 배출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 제거 후 말린 후 배출 ◆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끈으로 묶어 배출 → 다량의 이물질이 묻은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은 제거 후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와인병, 양주병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겉표면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제거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배출 → 깨진 유리의 양이 많을 경우, 불연성마대에 담아 배출
플라스틱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이물질 제거 후 압축 배출 ◆ 부착상표, 뚜껑, 은박지, 랩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다면 종량제봉투에 배출
투명페트병	무색페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찌그러트려서 배출 ◆ 기타 플라스틱과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스티로폼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 등	◆ 부착상표 등 이물질 제거 후 투명비닐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 겉표면에 '농약' 표기가 반드시 있는 것만 재활용 가능 ◆ 완전히 사용 후 그물망에 모아서 배출 ◆ 마을단위로 그물망에 모아서 환경과에 수거 요청 시 방문 수거 가능(상당량 이상만 가능)
	농촌폐비닐	◆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후 집하장 배출 ◆ 집하장이 없는 마을은 마을회에서 별도 자체 보관 ◆ 일정량 이상 모이면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수거 요청 ◆ 곤포사일리지, 보온덮개, 차광막, 반사지 등은 수거불가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 재활용 동네마당 등 주요거점 배출장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반납 ◆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잘 묶어서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시 수거 가능 → 깨졌다면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봉투로 배출
폐가전제품	가전제품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 또는 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1599-0903) 활용